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생활환경과  
일탈요인**

2009-28 | 책임연구보고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생활환경과  
일탈요인**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연구관 유지웅**

## - 차례 -

I. 서론 .....	1
1. 문제의식 .....	1
2. 연구방법 .....	2
II. 다문화가정의 개념과 기존 연구동향 .....	3
1. 다문화가정의 개념과 범위 .....	3
2. 기존 연구 동향 .....	5
III. 다문화가정 청소년 현황과 실태 .....	6
IV.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생활환경과 일탈요인 .....	14
1. 미취학과 학업중도이탈 .....	15
2. 언어소통과 학업의 어려움 .....	17
3. 가정 이혼율의 증가 .....	20
4. 취약한 경제적 기반 .....	23
5. 편견과 따돌림 .....	24
6. 소결 .....	25
V.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탈 예방을 위한 대책 .....	26

<참고문헌>

<표 차례>

<표 1>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규모(2008년 5월)(단위: 명) .....	7
<표 2> 시도별 국제결혼가정 자녀 분포(2008.5) .....	8
<표 3> 국제결혼가정 자녀 나이 분포 (단위: 명) .....	10
<표 4> 국제결혼가정 자녀 연령별 부모 국적 분포(단위: 명) .....	10
<표 5> 국제결혼가정 자녀 부모 국적 분포(단위: 명, %) .....	10
<표 6> 국제결혼가정 자녀 지역별 분포 현황(단위: 명, %) .....	12
<표 7>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 지역별 분포 현황(단위: 명, %) .....	12
<표 8> 국제결혼가정 자녀 취학 현황 .....	13
<표 9> 외국인 근로자 자녀 취학 현황 .....	13
<표 10> 국제결혼가정 자녀 나이별 인원 및 재학 인원 (단위: 명) .....	15
<표 11>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추이 (단위: 건) .....	21
<표 12> 결혼이주여성 이혼당시 20세 미만 자녀 유무별 이혼건수 (단위: 건) .....	22

# I .서론

## 1. 문제의식

최근 우리 사회는 세계 노동시장의 글로벌화와 함께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다국적 노동인력과 결혼이주여성의 유입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최근 출입국 관리국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과 단기체류외국인만도 11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sup>1)</sup> 결혼이주여성도 지난 몇 년 사이에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규모는 2009년 1월 말 현재 123,4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우리사회가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이 학계에서도 다문화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의 다문화담론은 오랫동안 단일민족사회를 이뤄 온 우리사회가 극복해야 할 사회적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단일민족사회의 가치가 강조되던 사회에서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다문화사회의 진행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기 마련인 문제들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다문화사회를 이뤘던 유럽의 프랑스, 독일, 그리고 호주와 같은 국가들에서 이민자 집단으로 인한 소요와 갈등은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우리 사회가 극복해 나가야 할 사회통합의 과제들을 시사해 주고 있다.

---

1) 출입국관리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09년 1월 말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등록외국인과 단기체류 외국인을 포함하여 1,148,403명에 이르고 있고, 출입국 관리국에 파악된 불법 체류 외국인 198,559명을 더하면 총 135만명 정도의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단일민족사회의 이념이 오랫동안 민족적 긍지를 불러일으켜 온, 전통사회의 가치가 여전히 지배하는 우리사회에서 다문화사회에서 예견되는 사회적 갈등에 관한 관심과 사회통합을 위한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결혼이주여성과 국내 남성이 이루는 국제결혼 가정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입양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취학할 연령에 이른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중은 날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up>2)</sup> 그런데 최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취학실태에 관한 국정감사자료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 부적응과 위기청소년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관한 불안감을 더해 주고 있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현황과 실태를 살피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가정환경과 학교 환경을 중심으로 사회 부적응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것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서 위기청소년으로 전락하고 일탈과 범죄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으로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일탈 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일탈 예방을 위한 대비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면접조사이다. 먼저 국내 문헌 연구로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다문화정책 관련 기관에서의 각종 세미나 자료집,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

2) 2008년 초등학교 재학중인 국제결혼가정 학생의 비중은 0.44%정도였으나, 2014년에 이르면 1.01%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는 0.08%에서 0.44%로, 전체 국제결혼가정 취학생들의 비중은 0.25%에서 0.7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오성배 외,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08, 부록7 참조).

가족부, 법무부 등 관련 정부기관의 정책 자료와 각종 통계자료들을 검토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집단 거주지역인 안산시 원곡동지역의 외국인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 담당자, 원곡동 지역 다문화청소년 지원 민간단체 활동가, 안산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담당자, 지구대 소속 외국인지원 담당자 등 다문화 가정 청소년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 생활환경과 이탈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 II. 다문화가정의 개념과 기존 연구동향

### 1. 다문화가정의 개념과 범위

다문화(multi-culture)는 언어, 문화, 관습, 종교, 인종, 계층, 직업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어 발생하는 다양한 문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맥락에서 다문화가정은 통상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 즉 국제결혼을 통해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만나 이혼가정을 말한다. 즉, 다문화가정이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구성된 가족을 지칭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3월 21일 제정, 동년 9월 22일 시행)에 따르면,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일컫는 것으로 ①『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 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로 이루어진 가족, ② 『국적법』 제 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 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다문화가정과 비슷한 용어로서 국제결혼가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는데, 국제결혼가정은 국적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 결합된 가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용어인 반면, 다문화가정은 한 가정 내에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up>3)</sup>

한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국제결혼을 통해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과 이룬 가정을 혼혈가정이라고 일컬어 왔다. 그러던 중 2003년 3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시민연대에서 국제결혼, 혼혈아 등의 차별적 용어를 추방하는 대신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가족 2세로 부르자고 제안했는데,<sup>4)</sup> 이 제안은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얻어서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정책적 차원에서나 학술적 차원에서는 다문화가정의 개념이 더욱 포괄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지난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에서는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정책대상으로서,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다문화가정의 범위에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인과 외국인이 구성한 가족뿐만 아니라, 이주민 가족(노동자, 유학생), 새터민 가족을 포함시키는 경향을 나타낸다. 조영달(2006)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범위에,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을 포함시켜 조사하고 있고, 정하성

3) 이성인·최유, 『다문화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법제지원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4) 한겨레신문 2003년 12월 3일자.

(2007)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안에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을 포함시켜 조사하고 있으며, 조혜영 외(2007)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범위에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의 범위에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근로자 가정을 포함시켜서 논의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이룬 가정(즉,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이룬 가정, 혹은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편으로 구성된 가정)을 지칭할 때에는 국제결혼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 2. 기존 연구 동향

다문화가정 자녀에 관한 연구들은 대개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이뤄져 왔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나이가 대개는 초등학교에 재학할 나이에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자녀에 관한 정책과 제도개선 연구는 대체로 교육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 실태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은데,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교육 소외 실태와 교육복지 지원과 관련된 논의<sup>5)</sup>,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sup>6)</sup>, 이주 아동 교육지원 욕구 조사<sup>7)</sup> 등이 있다.

국제결혼이주 여성에 관한 연구나 다문화가정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뤄져 왔으나,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와 관련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sup>8)</sup>, 국제결혼

5) 장혜경,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 소외 실태와 대책」, 제25차 KEDI 교육정책포럼 자료, 2004; 김정원 외,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5.

6) 설동훈 외,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인권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

7) 김영임·이선옥, 『이주 아동 교육지원 욕구 조사』, 경기도 교육청·코시안의 집, 2007.

8) 오성배,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제32권 제3호, 2005.

가정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의 교육실태에 관한 연구<sup>9)</sup>, 다문화가정 청소년 사회 적응 실태에 관한 연구<sup>10)</sup> 등이 있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실태나 사회 적응 실태에 관한 연구의 연장선에 놓여 있지만, 특별히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바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일탈을 가져올 수 있는 배경적 요인으로서 가정 및 학교 환경이다. 가정과 학교 안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학업 성취의 부진, 차별과 따돌림, 이혼하는 가정 환경에 놓여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탈하여 거리를 방황하고, 결국에는 위기청소년으로 존재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 Ⅲ. 다문화가정 청소년 현황과 실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에서 발표한 『200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8년 5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모두 891,341명인데, 그 가운데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국제이주자가 102,713명(11.5%)이고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가 41,672명(4.7%)이며, 국제결혼가정자녀는 모두 58,007명(6.5%)이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숫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2006년 2만 5천명 정도였던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수는 2007년에는 4만 4천명, 2008년 5월에는 5만 8천 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1)</sup> 2008년 조사 당시 국제

9) 조영달,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2006; 조혜영 외,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10) 금명자 외, “한국의 다문화가정청소년 실태”, 『다문화가정청소년 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 방안 자료집』, 한국청소년상담원, 2006; 정하성·우룡,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 적응 실태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개발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결혼가정 자녀의 수는 불과 2년 전인 2006년과 비교해서 2배 이상 증가한 숫자이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수는 실로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수적 증가는 지난 2000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 국제결혼 건수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수적 증가가 국제결혼가정에서의 출산자녀의 수적 증가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 수치에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이미 본국에서 결혼하였다가 얻은 자녀를 한국에서 결혼 후 입양한 자녀의 숫자까지 포함한다. 그러니까 2008년 5월 당시 5만 8천명의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숫자에는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정 자녀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출생하였다가 한국에서 결혼한 어머니를 따라 국내에 입양된 자녀까지 포함하는 수치이며, 각각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통계수치상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다.

---

11)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200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2008, 3쪽.

<표 1>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규모(2008년 5월)(단위: 명)

구분		계	남	여
외국인주민 전체		891,341 (100.0%)	482,870 (54.2%)	408,471 (45.8%)
국적미취득자	소계	767,823 (86.1%)	440,405 (49.4%)	327,418 (36.7%)
	외국인근로자	437,727 (49.1%)	301,556 (33.8%)	136,171 (15.3%)
	국제결혼이주자	102,713 (11.5%)	13,711 (1.5%)	89,002 (10%)
	유학생	56,279 (6.3%)	29,599 (3.3%)	26,680 (3%)
	기타	171,104 (19.2%)	95,539 (10.7%)	75,565 (8.5%)
국적취득자	소계	65,511 (7.4%)	12,628 (1.5%)	52,883 (5.9%)
	혼인귀화자	41,672 (4.7%)	2,991 (0.4%)	38,681 (4.3%)
	기타 취득자	23,839 (2.7%)	9,637 (1.1%)	14,202 (1.6%)
국제결혼가정자녀		58,007 (6.5%)	29,837 (3.3%)	28,170 (3.2%)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200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2008, 12면.

&lt;표 2&gt; 시도별 국제결혼가정 자녀 분포(2008.5)

	계	남	여
합계	58,007	29,837	28,170
서울특별시	7,500	3,864	3,636
부산광역시	3,057	1,588	1,469
대구광역시	2,254	1,137	1,117
인천광역시	3,054	1,539	1,515
광주광역시	1,608	825	783
대전광역시	985	525	460
울산광역시	1,068	537	531
경기도	11,131	5,725	5,406
강원도	2,590	1,331	1,259
충청북도	2,584	1,300	1,284
충청남도	3,421	1,731	1,690
전라북도	4,283	2,201	2,082
전라남도	4,902	2,539	2,363
경상북도	4,235	2,197	2,038
경상남도	4,601	2,410	2,191
제주도	734	388	346

출처: 통계청, 2008 지자체별 외국인 주민현황

2008년 5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29,837명, 여자가 28,170명으로 남자의 비중이 조금 더 높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6대 광역시에서 국제결혼자녀의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자녀의 숫자가 7,50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가 각각 3,000명 가량이다.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자녀의 숫자가 985명으로 가장 작다. 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1,131명을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높고,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가 각각 4,000명대, 강원도, 충청남북도가 2-3,000명대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모두 21,685명으로서 전체의 37.4%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제결혼자녀들의 지역별 분포는, 국제결혼이주자의 지역별

분포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비교할 때<sup>12)</sup> 지역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결혼이주자와 국제결혼 자녀의 지역별 분포상의 차이는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주자들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주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 부모 중 한 사람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 조선족(16,681명)을 포함하여 중국 국적(10,889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8,194명), 일본(6,508명), 필리핀(6,378명) 순이다. 이는 국제결혼이주자의 국적별 순위와 같다. 중국의 조선족은 국제결혼이주여성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에서는 전체 외국인노동자의 25%에 이르는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sup>13)</sup>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나이는 비교적 어린 편이다.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닌 만큼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나이는 대개 10세 미만이다. 행정안전부의 2008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8년 5월 현재 국제결혼가정 자녀 58,007명 가운데, 만 6세 이하가 33,140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만7세~만12세가 18,691명, 만13세~만15세가 3,672명, 만18세 이하가 2,504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12) 2008년 5월 시기 국제결혼이주자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27,770명(27%), 서울 24,048명(23.4%), 인천 6,068명(5.9%) 등 수도권 거주자가 56.3%를 차지한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한데, 경기도 173,230명(39.6%), 서울 108,140명(24.7%), 인천 30,407명(7%)로서, 수도권에 71.3%가 집중되어 있다(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200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2008, 6쪽).

13) 2008년 5월 당시 국내에 거주하는 국적 미취득 외국인 근로자 437,727명 가운데, 25%인 222,547명이 중국 조선족 출신이다.

<표 3> 국제결혼가정 자녀 나이 분포 (단위: 명)

구분	만6세 이하	만7세~만12세	만13세~만15세	만16세~만18세	계
수	33,140	18,691	3,672	2,504	58,007
비율	57.1%	32.2%	6.3%	4.3%	100.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200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2008.

<표 4> 국제결혼가정 자녀 연령별 부모 국적 분포(단위: 명)

	계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러시아	기타
만6세 이하	33,140	17,706 (53.4%)	12,865 (38.8%)	281 (0.9%)	538 (1.6%)	865 (2.6%)	171 (0.5%)	714 (2.2%)
만7세~만12세	18,691	14,085 (75.4%)	2,937 (15.7%)	130 (0.7%)	121 (0.6%)	829 (4.4%)	88 (0.5%)	501 (2.7%)
만13세~만15세	3,672	2,751 (74.9%)	316 (8.6%)	30 (0.8%)	28 (0.8%)	391 (10.6%)	24 (0.7%)	132 (3.6%)
만18세 이하	2,504	1,857 (74.2%)	201 (8%)	14 (0.6%)	26 (1%)	306 (12.2%)	21 (0.8%)	79 (3.2%)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200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2008.

<표 5> 국제결혼가정 자녀 부모 국적 분포(단위: 명, %)

구분	계	동북아					동남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러시아	기타
		중국	조선족	대만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기타*					
인원	58,007	10,889	16,681	1,515	6,508	816	8,194	6,378	870	196	674	454	707	2,406	303	1,416
비율		18.8	28.8	2.6	11.2	1.4	14.1	11.0	1.5	0.3	1.2	0.8	1.2	4.1	0.5	2.4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200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2008, 국적별 현황 자료 재구성.

\* 기타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동남아 지역임.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나이별 분포로 볼 때, 초등학교 재학 이상인 만7세 이상 자녀, 즉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할 나이에 있는 청소년들의 부모 국적은 75% 가량이 동북아시아 지역이다. 이는 초기 결혼이주여성의 대다수가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국적의 여성이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이와 함께 비교적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만6세 이하 아동의 부모의 국적에서 동남아시아지역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38.8%에 이르고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 부모 국적별로 볼 때,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이 4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이 14.1%, 일본이 11.2%, 필리핀이 11.0%를 차지하며, 그 외 지역은 10% 미만이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부모 국적별 비율을 조사한 결과, 부모의 국적이 일본인 경우가 41.0%, 중국이 22.3%, 필리핀이 1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sup>14)</sup> 다시 말하면, 국제결혼가정 자녀 부모의 국적에서 11.2%를 차지하는 일본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가 학교에 재학중인 비율은 41.0%인 반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국적에서 47.6%를 차지하는 중국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22.3%가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중국인 국제결혼가정이 상대적으로 일본인 국제결혼가정 보다 늦게 형성된 데 따라, 중국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미취학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결과이기도 할 것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부모가 일본 국적 출신인 자녀들의 학교 진학율이 높은 반면, 부모가 중국 국적 출신인 자녀들의 초·중·고등학교에 진학율이 낮은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14)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도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계획」, 2008년 6월.

<표 6> 국제결혼가정 자녀 지역별 분포 현황(단위: 명,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원	58,007	7,500	3,057	2,254	3,054	1,608	985	1,068	11,131	2,590	2,584	3,421	4,283	4,902	4,235	4,601	734
비율	100.0	12.9	5.3	3.9	5.3	2.8	1.7	1.8	19.2	4.5	4.5	5.9	7.4	8.5	7.3	7.9	1.3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200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2008, 지역별 현황 자료 재구성.

<표 7>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 지역별 분포 현황(단위: 명,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원	18,778	2,259	770	456	662	439	327	264	3,878	1,005	994	1,476	1,384	1,869	1,292	1,530	173
비율	100.0	12.0	4.1	2.4	3.5	2.3	1.7	1.4	20.7	5.4	5.3	7.9	7.4	10.0	6.9	8.1	0.9

출처: 통계청, 『2009 청소년 통계』.

국제결혼자녀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에 19.2%가 거주하고 있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울이 12.9%, 전남이 8.5%, 경남이 7.9%, 전북이 7.4%, 경북이 7.3% 순이다. 한편,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20.7%, 서울이 12.0%, 전남이 10.0%, 경남이 8.1%, 충남이 7.9%, 전북이 7.4% 순이다. 지역별로 볼 때, 충남지역은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비중에 비해서 볼 때, 재학중인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대구지역은 상대적으로 재학중인 자녀들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8> 국제결혼가정 자녀 취학 현황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5	5,332		583		206		6,121	
2006	6,795	27.4	924	58.5	279	35.4	7,998	30.6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2008	15,804	38.1	2,213	38.9	761	84.0	18,778	39.6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도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계획』, 2008.6.

2008년 6월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수는 모두 18,778명이다. 지난 2005년 재학 중인 자녀들의 수가 6,12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사이에 3배 정도의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는 15,804명으로서 84.2%를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2,213명으로 11.7%,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761명으로서 4%를 차지한다.

<표 9> 외국인 근로자 자녀 취학 현황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5	995		352		227		1,574	
2006	1,115	12.0	215	△39.0	61	△73.1	1,391	△11.6
2007	755	△32.3	391	81.9	63	3.3	1,209	△13.0
2008	981	29.9	314	△19.7	107	69.8	1,402	15.9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도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계획』, 2008.6.

2008년 6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 중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는 1,402명이다. 그 가운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인원은 981명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에 314명, 고등학교에 107

명이 재학 중에 있다. 지난 2005년 이후 취학 중인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수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1,574명이었으나, 2007년에는 1,209명으로 줄어들었다가 2008년에는 1,402명으로 다소 증가한 상태이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 재학 중인 인원 현황은 파악되고 있지만, 체류자격의 문제 등으로 미취학 상태에 있는 인원 에 대한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2005년 당시 재학 중인 인원은 1,574명이었지만, 취학연령대(7세~18세)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17,287명 정도로 추정된 바 있다.<sup>15)</sup>

## **IV.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생활환경과 일탈 요인**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나이는 비교적 어린 편이다. 2008년 5월 현재 국제결혼가정 자녀 58,007명 가운데, 만 6세 이하가 33,140명이고, 만7세~만12세가 18,691명, 만13세~만15세가 3,672명, 만 18세 이하가 2,504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절반 이상이 만6세 이하이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나이로 볼 때, 이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일탈과 범죄를 저지르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처해 있는 사회적 환경은 사회적 부적응과 일탈, 혹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처해 있는 환경, 특별히 학교와 가정 등에서 일탈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환경들을 검토하고,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의 일탈 요인을 분석한다.

15) 정하성·우룡,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 방안』,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22쪽.

## 1. 미취학과 학업중도이탈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일반 가정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국적을 가진 청소년들로서 마땅히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가정과 함께 중요한 사회화의 공간이다. 한 사회의 성원으로서 청소년들은 학교를 통해서 그들이 속한 사회생활의 양식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해 나간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 공간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회화의 공간이다. 그런데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실제 취학 상황을 살펴보면, 일반 가정 자녀들의 취학율에 비교해서 크게 낮게 나타난다. 아래 표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나이별 인원과 재학인원을 조사한 결과이다.

<표 10> 국제결혼가정 자녀 나이별 인원 및 재학 인원 (단위: 명)

구분	만6세 이하	만7세~만12세	만13세~만15세	만16세~만18세	계
인원	33,140	18,691	3,672	2,504	58,007
재학		15,804	2,213	761	
재학율		84.6%	60.3%	30.4%	

자료: 통계청, 『2009 청소년 통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200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결과」, 2008.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sup>16)</sup>, 2008년 5월 현재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해당하는 만7세~만12세에 해당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모두 18,691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조사한 2008년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16) 이 조사는 2007년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는데,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외국인 주민의 범위에 포함시켜 조사해 오고 있다. 이 조사의 내용은 시·도, 시·군·구별 외국인 주민 수(유형별, 국적별, 성별)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취학현황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수는 15,80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해당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84.6%만이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취학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중학교 취학연령에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재학비율은 60.3%이고, 고등학교 취학연령에 있는 자녀들의 재학비율은 30.4%에 불과하다. 일반 가정의 초등학교 미취학률은 0.4%이고, 중학교 미진학율은 4%, 고등학교 미진학율은 8.7%인 것과 비교해 볼 때도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미취학·미진학율은 엄청나게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학업 중도탈락율에 관한 조사는 지난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와 펄벅재단 한국지부 조사에서도 이뤄진 바 있다. 이 조사에서도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학업중도 탈락율은 일반학생과 비교해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일반학생은 초등학교 미진학 및 중퇴가 거의 없는 반면,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9.4%로 조사되었으며, 일반학생이 중학교 미진학 및 중퇴의 경우는 1.1%인 반면,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17.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7)</sup>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인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과의 면담에 의하면, 학령기에 있으면서도 학교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사례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경우보다 더욱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그에 관한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뤄진 바 없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학교 부적응과 높은 중도 탈락율은 크게는 신분상의 불안과 언어소통의 문제에 기인한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대부분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 가운데 체류허가를 받은 아동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sup>18)</sup>

17) 정하성·우룡, 앞의 논문, 2007, 110쪽,

외국인 노동자가 합법적인 취업을 위한 체류 자격은 연수취업(E-8)과 비전문취업(E-9)으로 입국한 경우이다. 그런데 이 경우 가족동반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부모는 거의 대부분 불법체류자라고 할 수 있다.<sup>19)</sup>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자녀는 부모와 마찬가지로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자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취학현황은 그들의 학교 부적응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 원인을 가정의 해체, 사회적 차별과 따돌림, 언어소통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할 때,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높은 미취학 상황은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직면한 사회 부적응의 전반적 위기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높은 미취학율은 단지 학업 수행 능력 차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부적응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2. 언어소통과 학업의 어려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말이 서툴다는 것과 학업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하성(2007)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sup>20)</sup>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공부와 학업문제

18) 조영달,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2006, 66쪽.

19) 조혜영 외,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231쪽; 설동훈 외,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2005.

20) 이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들은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60명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 청소년 56명이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39.7%)였으며, 언어문제(14.7%), 직업이나 진로문제(9.5%) 순이었다.<sup>21)</sup>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을 조사한 연구자들은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언어능력이 떨어져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해, 어휘구사, 작문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언어문제는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들보다는 결혼이주여성이 본국에서 낳았다가 국내에 입양해 온 자녀들의 경우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안산시 원곡동 외국인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와의 면담에 따르면,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국내에서 가정을 이룬 후, 본국에서 입양해 온 자녀들을 국내 학교에 진학시키고자 하여도, 한국사회의 경쟁적인 교육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진학을 포기하거나 진학하였다가도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다. 그렇게 학교 밖에 놓여 있는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은 대개 공장에 다니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sup>22)</sup> 국내에 결혼이주여성으로 입국한 모친을 따라 나중에 입양되어 온 자녀들이 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어가 제대로 구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져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언어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의 특별 프로그램을 운용할 형편이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므로, 결국 외국에서 입양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제도권 학교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다문화가정 지원 담당자들은 외국인들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 원곡동 지역 학교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한국어

21) 정하성·우룡, 앞의 논문, 2007, 56쪽.

22) 안산시 원곡동 소재 외국인지원센터 다문화가정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임. 학교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사례는 많이 발견되지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에 능숙하지 못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을 받아주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학령에 맞게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학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령에 맞게 진학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새로운 갈등 상황이 있다. 그것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 안에서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린 다른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다.<sup>23)</sup>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소통의 문제는 가정 안에서도 일어난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면서 자녀와 부모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sup>24)</sup> 가정에서 부모, 특히 어머니와 자유롭게 의사소통하지 못하는 자녀들의 경우, 별도의 생활습관 지도는 학교에서 교사의 몫이 된다. 그런가 하면, 결혼이주여성은 자녀가 학교에서 받아오는 각종 알림장, 일기장, 숙제 등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녀의 학습 준비물을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오성배(2006)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들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습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조혜영 외(2007)의 조사에서는 교사들이 다문화가정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과의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보고한다.<sup>25)</sup> 교사들이 자녀들의 학습 지도와 관련해서 학부모와 면담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가 미등록 체류 외국인 노동자인 경우에 학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미등록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은행에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23) 조혜영 외, 앞의 논문, 2007, 115쪽.

24) 조혜영 외, 위의 논문, 132쪽.

25) 조혜영 외, 위의 논문, 133쪽.

발생하기도 한다. 더구나 다문화가족 부모들, 결혼이주여성이나 여성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개 생업에 분주하다. 학교 교사들은 생업에 바쁜 다문화가족 부모들과 상담의 시간을 갖기도 쉽지 않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소통의 문제, 즉 외국인 부모와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입양되어 온 자녀의 경우 학교 교사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은 적령기에 맞는 학년에 진학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학업을 따라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가져온다. 언어소통과 학업의 어려움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 상황이다.

### 3. 가정 이혼율의 증가

최근 국내가정의 총 이혼 이혼건수는 지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8년 총이혼건수 대비 외국인과의 총 이혼의 구성비는 9.7%에 이른다. 국내에서 이혼하는 가정 10가정 중에서 한 가정은 국제결혼 가정인 셈이다. 지난 2004년까지만 하여도 국제결혼 가정에서 한국인 처와 외국인 남편으로 구성된 국제결혼가정이 그 반대인 경우에 비해서 더욱 높은 이혼건수를 나타냈다. 그러나 2005년 이후로는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의 이혼건수가 더욱 높아지기 시작해서 지난 2008년에는 두 배 이상 높은 이혼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로 구성된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제결혼가정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제결혼가정의 위기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의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가정이 이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가족간의 갈등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그 가정에 속한 자녀들을 위기청소년으로 몰아가는 환경

이 되기 쉽다.

<표 11>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추이 (단위: 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이혼건수	144,910	166,617	138,932	128,035	124,524	124,072	116,535
외국인과의 총이혼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총이혼대비 구성비	1.2%	1.2%	2.4%	3.3%	4.9%	7.0%	9.7%
한국인남편+외국인처	380	547	1,567	2,382	3,933	5,707	7,962
한국인처+외국인남편	1,364	1,465	1,733	1,789	2,203	2,964	3,293

출처: 통계청, 「2008 이혼통계 결과」, 2009.

지난 2008년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와의 이혼 건수는 모두 7,962건 으로서, 중국이 5,397건(67.8%), 베트남 1,078건, 필리핀 268건, 일본 205건 순으로 나타난다. 중국인 처와의 이혼 비중이 높은 것은 중국인 처와의 혼인누적건수가 다른 외국인 처보다 더욱 높은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외국인 처의 국적별로 최근 이혼율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국적은 캄보디아이다. 2007년 99건의 이혼건수를 보였던 것이 2008년에는 178건을 나타내 79.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최근 이혼통계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제결혼 가정이 이혼하게 될 때 이미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로 구성된 국제결혼가정의 총 이혼건수에서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가 없었던 경우가 90.1%로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2008년 한 해 동안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와의 이혼 당시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를 둔 경우도 614건에 이른다.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경우가 430건으로 가장 많았고, 2명이 159건, 3명 이상을 둔 경우도 25건이나 되었다. 이혼한 외국인 처의 국적별로는 중국이 256건, 베트남이 108건, 일본이 59건이었다.

&lt;표 12&gt; 결혼이주여성 이혼당시 20세 미만 자녀 유무별 이혼건수 (단위: 건)

	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몽고	우즈벡	캄보디아	기타
계*	7,962	5,398	1,078	268	295	213	160	178	462
자녀 있음	614	256	108	37	59	15	10	10	119
1명	430	181	84	24	38	10	8	8	77
2명	159	67	22	9	14	5	2	2	38
3명	25	8	2	4	7	0	0	0	4
자녀 없음	7,170	5,000	965	228	139	196	148	168	326

출처: 통계청, 「2008년 이혼통계 결과」, 2009.

\* 이혼당시 자녀 유무를 밝히지 않은 경우를 포함.

또한 정하성(2007)의 연구에 의하면, 결손가정 상태에 있는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116명 가운데, 부모가 모두 계신 경우는 69.8% 정도였으며, 어머니만 계신 경우가 23.3%, 부모 두 분 모두 안 계신 경우가 4.3%, 아버지만 계신 경우가 2.6%로 나타났다.<sup>26)</sup>

국제결혼가정에서 이혼율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학교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혼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가족간의 갈등은 대개는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갈등이거나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의 갈등의 형태를 띠는데, 이러한 가족간의 갈등은 그 배경에는 원활하지 못한 언어소통, 문화 및 교육방식의 차이, 문화적 차이 등의 복합적 요인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정환경은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에게는 제대로 된 교육적 지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심리적으로는 학교에서의 원만한 교우 관계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26) 정하성·우룡, 앞의 논문, 2007, 28쪽.

#### 4. 취약한 경제적 기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국제결혼은 국내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한 농촌 남성들의 경제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결혼이 농촌총각과 가난한 동남아 여성의 결합으로 인식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국제결혼은 한국인 남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력과 그로 인해 국내에서 결혼 상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국제결혼을 통해서 한국인 남성은 대개 노동력을 갖춘 조력자를 얻게 되지만, 그것이 경제적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다.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결혼이주여성을 상대로 한 연구자들의 심층면접조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드러나곤 한다.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기대하고 국제결혼을 했다가 실망하는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는 적지 않다.

국제결혼가정은 대체로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기반이 취약하다. 2005년도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때, 국제결혼가정 전체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수준에 있었으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50% 이하의 수준에 있는 경우도 44.2%였다.<sup>27)</sup>

박대식 외(2008)의 조사에서는<sup>28)</sup> 특별히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의 소득수준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7년 조사 당시 조사대상 국제결혼가정의 절반 이상(53.6%)이 연간 가구 소득 2,0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2007년 전국 농가의 평균소득이 3,197만원인 것과 비교해 보면,<sup>29)</sup> 농촌 다문화가정의 대부분(94.9%)이 전국 농가 평균 소득에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30)</sup>

27) 오성배 외, 앞의 논문, 2008, 20쪽.

28) 이 조사는 전국의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남편의 직업이 농업인 다문화가정 400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29)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물 주요통계』, 2008.

30) 박대식 외, 『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28쪽.

또한 설동훈 외(2005)의 조사결과에서도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은 저소득층 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영세업종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유입, 농어촌지역에서의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소득수준은 국제결혼가정의 상황보다 더욱 열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체로 국내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 업종 및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대체 인력으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sup>31)</sup> 2005년 12월 현재 전체 외국인 근로자(합법)의 86%가 단순 기능인력이며, 여기에 불법 체류자까지 감안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대다수가 단순노무 인력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5. 편견과 따돌림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은 그 출신 지역과 피부색이 차별성을 갖는다는 이유에서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수집단(minorities)이다. 피부색에서 구별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조영달(2006)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점은 ‘학습결손’과 ‘편견과 차별로 인한 학교부적응’으로 나타났다. 다른 학생들과 피부색이 다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 차별과 따돌림을 당하면서 학교를 중퇴하거나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으로 조영달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10명 중 2명 정도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sup>32)</sup> 정하성의

31)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 2007, 22쪽.

32) 송미경 외,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2007, 1쪽.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14.6%가 친구들로부터 외모로 인한 놀림과 따돌림을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다.<sup>33)</sup> 일반 학생들과 외모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따돌림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피부색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놀림이나 따돌림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피부색이 상대적으로 더욱 검다는 이유에서 ‘아프리카’라고 놀리는 것이 그 한 예이다. 조혜영 외(2007)의 조사에 따르면, 겉보기에 다른 외모를 가진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그 차이가 ‘놀림’의 이유가 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피부색이나 이름이 놀림의 대상이 되곤 한다.<sup>34)</sup>

## 6. 소결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취학상태에 관한 통계수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대변하는 자료이다. 이러한 통계수치 외에도 여러 연구결과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가정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학습지원의 부재, 이혼에 이르는 부부간의 갈등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학교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이해와 언어구사가 자유롭지 못하여 학업 성취에 어려움을 겪고, 더러는 그들의 피부색으로 편견과 따돌림의 대상으로 존재하기도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들은 언어능력 저하, 정체성의 혼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새로운 소외계층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높인다. 실제로 제도권 학교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일탈적 환경에 접촉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마땅한 소일거리가 없어서 오락실을 전전하거나 저녁시간에 길거

33) 정하성·우룡, 앞의 논문, 2007, 30쪽.

34) 조혜영, 앞의 논문, 2007, 109쪽.

리를 방황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위기청소년들과 접촉하거나 청소년 유해환경에 노출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 **V. 다문화가정 청소년 일탈 예방을 위한 대책**

### 1.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지역인 안산시 원곡동 지역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 활동을 담당하는 지자체 관계자들, 민간지원단체 활동가들, 일선 지구대의 다문화가정 전담자 등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볼 때, 제도권 학교 밖에 놓여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실태는 거의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연차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가 있지만, 그 조사는 외국인 주민의 국적별 현황, 즉 인원 규모 정도만이 파악될 뿐이다. 학교 밖에 놓여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실태에 대한 조사는 민간지원단체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개인적 연결망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뿐인데, 현 상황에서는 그들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아직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지금과 같은 학교 이탈 추세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일탈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제도권 학교 밖에 존재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실태에 관한 체계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실태조사가 이뤄진 이후에 비로소 관련 대책과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적응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가족 구성 및 생활여건이 다양한 만큼 학교생활 적응 과정에서도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주민의 역사가 긴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이주민 청소년들의 출신국가별, 지역별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이주의 동기 및 정착지역에 따른 집단별 적응 유형에 관한 분석도 축적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주민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는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형성의 역사가 비교적 짧기 때문이다. 다문화사회로의 빠른 진행이 향후 우리 사회에 새로운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되는 것을 막고 그러한 데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 특별히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러한 체계적인 연구의 기초 위에서 바람직한 대책 수립이 가능해 질 것이다.

## 2. 해외에서 입양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기초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지원 전문가 면담 결과에 의하면, 제도권 학교 밖에 이탈해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대체로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국내에서 결혼한 어머니를 따라 입양되거나, 외국인 근로자 자녀로서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경찰에서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과의 협조 하에 해외에서 입양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관한 기초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탈 예방 및 범죄 수사 자료로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 F-1 비자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로 남아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규모가 지역별로 파악될 수 있도록 정보의 공유와 데이

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

### 3.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에는 의사전담지구대의 설치가 필요하다.

안산시 원곡동과 같이 외국인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은 특별히 지역 주민들의 치안수요가 높다. 지역주민들은 경찰에서 인원 보강을 통해 순찰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찰 인력 부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찰의 부족한 인력으로 안산시 원곡동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순찰인력과 경찰이 함께 지역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찰에서는 치안 수요가 많은 곳에는 경찰 순찰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들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탈 예방과 외국인 근로자 범죄 예방을 위해서 경찰에 요구하는 주요 사항은 지역 순찰 인력의 보강이다. 지자체에서 일부 인력이 지원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찰이 순찰활동을 벌이는 것과는 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 의사전담지구대 창설은 순찰 인력 보강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담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 의사전담지구대에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에 능통한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 4. 학교밖에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활동영역을 중심으로 한 순찰 활동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 거주 밀집지역에서 다문화가정 지원활동을 벌이는 전문

활동가들과의 면담결과에 따르면,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중도 이탈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 가운데 13~18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대신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임시직 형태의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주로 늦은 저녁시간에 밤거리를 방황하거나 PC방 등 오락실을 전전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많다고 하나, 그 규모는 과약되지 않고 있다. 다문화가정에 속한 위기 청소년들의 활동 영역이 일반 위기청소년들의 영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때, 청소년들의 이탈행위 우범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5. 교육정책적 차원에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을 제도권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경우 배우자 중 한명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인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자녀 취학에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의 경우 부모의 다양한 국내 체류 자격에 따른 신분상의 위치에 따라 학교 입학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자녀로서 우리나라의 학교에 최초로 입학 또는 전학하는 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주신고증을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경우 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3년 1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1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실태조사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대체로 입학이 이뤄지고 있으나, 미등록 체류 아동이 중고등학교에 입학이나 전학을 문의할 경우에는 여전히 학교 입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up>35)</sup>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입학 여부를 학교장의 재량에 맡

길 것이 아니라, 입학 및 졸업과 관련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현행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의 역기능을 고려하여 천편일률적인 지원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 중에서 다문화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꺼리는 학생들이 있다. 다문화지원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일반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자신들이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구분지어지고 있다고 느낀다. 지원프로그램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지원프로그램들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구분짓는 기제로 작용하고 오히려 심리적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up>35)</sup>

7.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편견과 따돌림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피부색이 크게 다르지 않은 중국 교포 자녀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지만,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부모 자녀의 경우, 학교생활에서의 따돌림과 편견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져온다. 다양성의 인정과 다문화주의의 기치가 일선 교육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교양과 홍보를 통해 인식의 전환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 해소는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길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35) 조혜영 외, 앞의 논문, 2007, 84쪽.

36) 조혜영 외, 위의 논문, 190쪽.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도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계획」, 2008.
- 금명자 외, “한국의 다문화가정청소년 실태”, 『다문화가정청소년 사회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자료집』, 한국청소년상담원, 2006.
- 김영임 · 이선옥, 『이주 아동 교육지원 욕구 조사』, 경기도 교육청 · 코시안의 집, 2007.
- 김정원 외,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5.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물 주요통계』, 2008.
- 박대식 외, 『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 설동훈 외,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인권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
- 설동훈 외,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2005.
- 설동훈,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적정 규모 추정』, 법무부, 2005.
- 송미경 외,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2007.
- 오성배 외,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08.
- 오성배,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제32권 제3호, 2005.
- 오성배, “한국사회의 소수민족(ethnic minority), '코시안'(Kosian)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 16(4), 2006.
- 이성언·최유, 『다문화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법제지원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 이재분 외,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실태 연구-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08.
- 장혜경,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 소외 실태와 대책」, 제25차 KEDI 교육정책포럼 자료. 2004.
- 전경숙,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 『청소년상담연구』, 제16권 제1호, 2008.
- 정금자, “외국인 자녀의 인권”, 한국인권재단 편,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2000.
- 정하성·우룡,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 조영달,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2006.
- 조혜영 외,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 출입국관리국, 『통계월보』, 2009.1.
- 통계청, 「2008년 이혼통계 결과」, 2009.
- 통계청, 『2009 청소년 통계』.2009.
- 통계청, 「지자체별 외국인 주민현황」, 2008.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민족·다문화 사회를 향한 한국사회의 도전과 전망』, 2007.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200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2008.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 2007.

책임연구보고서 2009-28

##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생활환경과 일탈요인

---

발행일 : 2009년 6월 30일

발행인 : 김 길 배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http://www.psi.go.kr)

---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